

## 心理的 環境에서의 構造

차 제 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에서 환경 속의 構造, 특히 “多座席構造”라는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心理的 環境構造의 생각은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차, 1991)에서 발원한 것이다. 구조의 개념, 구조의 종류, 구조와 사건 간의 관계, 그리고 현행 심리학 이론 속에서 발견되는 구조의 예를 차례로 다루었다. 여기서 제시한 環境構造의 개념은 심리적 환경이 지니는 組織性, 不變性, 그리고 反復發生性을 반영하며, 機能分析을 전제로 한다. Kurt Lewin과 Kelley의 場面構造에 대한 접근은 인간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장면 구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環境構造라는 개념은 事件의 이해뿐만 아니라 動機의 心理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심리학에서 行動環境 속에서의 “構造”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조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시도하겠다. 이런 의미의 구조는 사회학에서는 Durkheim 이래로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로 다루어졌으나 심리학에서는 전혀 다루어진 바가 없다. 그렇게 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학이 전통적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다 해서 꼭 그 개인의 행동의 환경까지도 개인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심리학에서는 통상 개인의 행동의 원인으로서 즉각적인 원이 되는 것, 즉 눈 앞에 있는 개인(또는 여러 명의 개인)이나 단편적인 자극만을 고려 대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인간이 그 속에 살아가고 행동하는 환경(사회적, 물리적) 자체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刺激(stimulus)”이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극히 작은 단편에 불과하다. 심리학에서 행동을 결정

하는 요인으로 場面(situation)이나 過去經驗도 거론이 되고 실험이나 다른 연구에 독립변인으로 더러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런 장면이나 과거 경험이 특정한 構造를 지닌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위에서 차차 언급될 것이다.

행동환경 속의 構造(structure)라는 개념이 부각되게 된 것은 필자가 연전에 제의한 소위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車載浩, 1992)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다.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panoramic social psychology)은 두가지 고려에서 착안하게 된 것이다. 하나는 이제까지의 사회심리학이 사회의 현실문제를 다루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은 개인의 심리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인과관계의 규명에 역점을 두지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 따라서 정통적인 사회심리학적 지식만으로 무장된 사회심리학자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무식하고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특히 사회심리학에서 배운 개념이나 분석의 틀이 실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현상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은 인간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 속에서 인간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이런 정통 사회심리학의 약점을 보완해 준다.

두번째 이유는 파노라마적인 관점을 취하면 정통 사회심리학에서처럼 여러 심리과정을 분리된 상태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실제 상황의 맥락 안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심리과정을 원래의 맥락으로 되돌려 고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잇점은 예컨대 “攻擊”이라는 행동과정이 여러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추상적 과정이 아니라 行動內容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다. 심리학은 지나치게 분석에 의지하는 나머지 內容을 상실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런 경향은 Kurt Lewin이 주도한 심리학 속의 物理主義(physicalism)의 영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인간간의 친애 추구행동이 좌절을 겪을 때와 권력 추구행동이 좌절을 겪을 때 두 좌절과정이 꼭 같다고 가정해도 될 것인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유사점 내지 공통점이 발견될 것이지만, 그 공통점만 다루고 심리학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車, 1988, p.57). 또 목숨을 내걸고 남의 생명을 건져주는 돕는 행동과 재물로 남을 남을 구조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밖에 다른 실제 사회사건에서는 여러 다른 심리과정이 차례로 또는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공격행동이 사랑으로 바뀌고 그 반대도 된다. 한 사람의 공격행동은 옆사람이 도움행동을 할 계기를 제공한다. 이런 심리과정들 간의 관계는 실험실의 제한된 시야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으나, 巨視的인 조망을 주장하는 파노라마

적 접근에서는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사실로 나타난다.

이 두가지 이유 외에도 파노라마적 접근이 현재의 심리학에 보탬이 되는 점은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사회심리학과 관련 있는 것이다. 정통 사회심리학을 포함해서 심리학 일반의 기본틀은 S-O-R의 도식인데, 현대 사회심리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연구들은 그런 틀로는 수용이 잘 안 되지만 파노라마적 관점, 하나의 사건의 분석이라는 관점으로는 쉽게 수용된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 졌다(車, 1992). 다시 말하면, 파노라마적 관점이 기존의 사회심리학의 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은 드물게 일어나는 중요한 사회사건의 분석에 관심을 갖는다. 기본 전제는 같은 종류의 사건들 사이에는 내용의 형태 면에서 일종의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록 발생시점이나 발생장소가 크게 달라도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면 두 발생간에 내용에 있어서 그런 종류의 사건 특유의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관되게 반복되는 특징을 필자는 “形態(configuration)”라 불렀다. 필자가 먼저 머리 속에 둔 것은 洪水나 戰爭과 같은 대규모 사건이다. 홍수에서는 어김없이 (1) 홍수의 피해자, (2) 홍수로 떠내려오는 물건을 건져 이득을 보는 자, (3) 구경꾼, (4) 표류하는 사람을 구출하는 “영웅들”, 그리고 (5)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활동하는 “자선활동가”가 있게 마련이다. 그밖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이익 추구자의 일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홍수라는 사건에는 여러개의 그러나 한정된 종류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사람들은 각각의 역할에 “동원”되게 됨을 알 수 있다. 홍수라는 사건이 그런 일관된 역할과 반응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은 홍수라는 유목의 사건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構造”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구조란 홍수의 경우는 강의 물흐름이 서서히 높아지고 빨라져서 강 기슭에 있는 인가와 전답을 휩쓸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장면 속에 존재하는 구조를 핵심개념으로 떠올린다.

心理的環境과 場面. 더 나아가기 전에 行動環境(behavioral environment)과 場面(situation)을 구별해 둘 필요가 있다. 둘은 이제까지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되어 오지 않았으나 본 논문에서는 둘을 구별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심리적 환경”(또는 단순히 환경)은 행동자가 포함되지 않은 심리적 환경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장면”은 행동자가 들어 있는 심리적 환경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로 한다. 환경에서 행동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의 분석에 사람의 욕구나 능력이 전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환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특정한 개인이 아니라)의 욕구체계나 능력체계가 가정된다.

다음에 다루려는 것은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 자체가 아니라 그 것이 부각시키는 행동적 환경 속에 발견되는 구조의 문제이다. 아래서는 (1) 構造의 定義, (2) 構造의 種類, (3) 構造와 事件 간의 關係, 그리고 마지막으로 (4) 心理學理論 속에서 발견되는 構造들을 차례로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밝혀줄 것은 이 글이 특정한 종류의 구조에 관한 완성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특정한 의미의 구조가 심리학에서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이다. 보다 구체적인 이론은 따로 다를 기회가 있을 것이다.

## 構造의 概念

구조라는 개념은 사회학자들이 알압리에 강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회학자들이 구조를 발견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회학 안에는 社會論的 社會學派(the sociologistic school)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개인)의 심리현상은 사회나 사회적 현실로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Sorokin, 1928). 이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학파는 心理論的 社會學派(the psychological school)인데, 이 입장에서는 사회나 사회적 사실을 인간 개인의 특성의 표현 내지 이로 부터의 파생물로 간주한다. 이런 대비는 최근에는 사회학 내의 構造主義(structuralism)와 個人主義(individualism)의 대비로 표현되고 있다(Mayhew, 1981)<sup>1)</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주의 사회학이 구조라는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構造主義”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구조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구조주의 사회학의 대표자의 한 사람인 Durkheim은 그의 고전적인 *Suicide*(Durkheim, 1897)에서 自殺率이 氣候보다는 社會(프랑스) 안에 존재하는 개인의 社會的 孤立과 관계가 있다는 것(더 정확하게는 社會的 規範의 不在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사회적 고립 또는 규범의 부재를 하나의 구조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구조주의”는 역사가들이 사회학의 유파에 대해 붙인 이름에 불과한 것이었고, 구조주의에서 구조가 과학적 개념으로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특정한 의미로 파악된 구조를 하나의 과학적 개념으로서 등장시키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조가 이제까지 심리학 내에서 간간히 언급된 구조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의미의 구조가 다른 맥락에서 말하는 구조의 개념과 어떤 기본적인 점에서 공통점을 지닐 수 있고 또 다른 맥락에서 제기된 구조의 개념의 사용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구조는 특별한 종류의 것으로 심리학에서 아직 그런 의미의 구조를 말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사람의 행동환경

1) 이 두 입장의 차이에 관해서는 金順東(1983. pp. 202f)을 참조하라.

속에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知覺의 대상이 되는 刺激 속에 있는 構造(形態主義 心理學者가 다룬 것 같은)나 역시 지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행동 속에 발견되는 구조(Floyd Allport가 다룬 것 같은)나 신경활동에서 발견되는 구조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事件에 관계된 構造이며, 한 構造가 多數의 個人的 行動을 決定하는(각기 달리) 그런 構造이다. 말하자면 한 구조가 여러 개인을 “신는” 그런 구조이다. 그래서 구조를 포함하는 事件(event)에 대해서 負荷(load)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車, 1991). 드물게나마 심리학이 구조를 다룰 때, 그 구조는 대개 한 개인이 맞이하는 또는 만나는 구조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구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만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를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單座席構造(singleseated structure)와 구분해서 여기서는 多座席構造(multiseated structure)라고 부르기로 한다.

여기서 구조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한다. 性格構造나 認知構造 등과 같이 사람 내부에 있는 구조는 일단 논의로 하기로 한다. 그러면, 환경의 일부로서 구조란 개인의 행동환경의 “생김새”를 가리킨다. 이런 “생김새”는 사람 밖에 사실로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구조론적 입장이다. 이런 가정은 지각자극(정보) 속에 존재하는 구조를 다룬 생태학적 지각이론의 입장과 상통한다. Gibson이 대표하는 生態學的 知覺理論에서는 외부 자극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Zabrowitz, 1990, p. 5).<sup>2)</sup>

역사적으로 구조라는 개념의 필요성이 심리학의 어느 분야보다도 知覺心理學분야(形態主義 心理學, F. Allport의 事件構造理論, 生態學

的 知覺理論)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졌다는 것은 회한한 일이다. 왜냐 하면 구조라는 개념의 필요성은 지각에서보다는 行動過程에서 더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뒤에서 다룰 대규모 事件의 構造의 논의에서 밝혀질 것이다.

여기서는 구조(환경 속에 있는 구조)는 이에 접하는 개인(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그 구조가 요구하는 특징적인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가정한다. 즉, 구조를 行動의 造形者(shaper)로 가정한다.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刺激(stimulus)은 환경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주로 端緒(cue)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조의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에 비해 Skinner가 말하는 強化計劃(reinforcement schedule)은 행동을 조형하기 때문에 구조로서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낸다. Skinner상자 속에 있는 배고픈 쥐에 대해서 특정한 강화계획은 하나의 환경이면서 뚜렷한 구조를 제시한다. 강화계획에서 무엇이 구조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이 응당 나오게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環境의 質的인 側面을 가리키는 말이다. Skinner의 100% 강화계획과 50% 강화계획은 양적으로 다르기도 하지만(강화된 시행의 수가 다르다) 또한 강화없이도 행동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그런 측면이 없고 후자에는 그것이 있다. 이 말은 구조의 차이를 말한 것이고 구조 자체에 관해 말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구조는 물론 같은 환경에 불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구조는 “한 행동환경이 전형적으로 제공하는 報償-負擔(rewardcost)體系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Skinner상자 속의 100% 강화계획은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 매번 반응할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구조이고 50% 강화계획은 여러번 반응해야만 먹이를 얻어먹을 수 있는 힘든 장면의 구조이다. 전자는 안정된 상황의 구조이고 후자는 불안정한 상황의 구조이다. 또 전자는 부담이 적은 장면을 나타내고 후자는 부담이 큰 장면을 나타낸다. 수평저울에서

2) “...the information in the external stimulus is itself structured rather than composed of individual elements; and that this structure is detected by the perceiver rather than being created by the perceiver”(Zabrowitz, 1990, p. 5).

한쪽이 더 무거우면 저울은 그쪽으로 기울는데, 그 무게가 가벼워져도 (양적 변화) 한동안 기울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게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가벼워지면, 저울은 반대 쪽으로 기울게 된다.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장면의 질적 측면이 구조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Skinner상자에서의 강화계획 각각이 다른 행동구조를 나타내지만, 행동구조의 개념의 유용성을 예시하는데 특히 좋은 예는 되지 못한다. 한가지 이 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Skinner상자의 강화계획이라는 구조는 쥐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계획은 실험자가 짜아 놓은 것이지만(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이지만) 비슷한 종류의 유기체가 그 구조에 들어가는 한 어느 개체가 들어가도 그 구조는 같은 역할을 한다. 또 특정한 유기체의 동기상태(배고픔 정도)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는 개체와 독립적이다. 물론 강화체계로서의 구조의 심리적인 의미는 그 구조에 들어갈 유기체와 무관하지 않다. 쥐와 사람에게는 동일한 강화계획이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구조가 전제로 하는 유기체가 분명하면 구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유기체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구조를 구성하는 환경의 질적인 측면은 환경의 의미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개체가 적응을 해야 하는 “문제”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 내지 단순히 “面”은 生態學的知覺理論에서 말하는 提供機會(affordances)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는 제한된 것으로 가정한다. “提供機會”란 Gibson에 의하면 “환경이 동물에게 제공하는 것, 즉 환경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련해주고 제공해주는 것(what the environment “offers the animal, what it provides or furnishes, either for good or ill---Gibson, 1979, p. 127)”이다. 이것들은 行動的據點 (behavioral niche)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Koffka에 따라 “...과일은 ‘나를 먹어라’하고, 물은 ‘나를 마시라’

하고, 천등은 ‘나를 두려워하라’하고, 여인은 ‘나를 사랑하라’한다(Gibson, 1979, p.138)”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Gibson이 말하는 것과 한가지 점에서 다르다. Gibson은 과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먹어라’라고 부르는 것을 가정했는데 여기서 다루는 多座席構造는 사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다른 과일이 열려 있는 한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 차이를 일종의 대규모 사건인 홍수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洪水에서는 (1) 사람이 떠나려가고, (2) 재물이 떠나려가고, (3) 집이 없어지고 먹지 못하는 이재민이 생기고, 그리고 (4) 큰 물이 나서 들판을 휩쓴다. 이것들은 홍수라는 사건을 이루는 구조의 “면”들이다. 각각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提供機會(affordances)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구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떠내려가는 재물을 건져 이익을 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이재민을 구하는 일을 꾸미고, 어떤 사람은 물구경을 한다. 한 개인에게 한가지 행동을 충동질하는 사과와는 다른 것이다. 홍수와 같은 사건을 보면 “제공기회”라는 개념이 知覺에서 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떠오른다.

여기서 왜 어떤 사람은 위태로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 얻기에 열중하게 되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개인차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사건 당시 각 개인이 처해 있던 상황(우연적으로 결정된)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역사적전의 사람을 구하는 “영웅”은 우연히 떠나려가는 사람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게 된 사람이고, 수영 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며, 의협심도 좀 있는 사람이다. 또하나 예를 들면, 물구경꾼은 홍수의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사람이며, 강가에서 멀리 살지 않은 사람이며, 생활에 여유있고 홍수의 피해를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며, 호기심은 좀 있지만 이재민구호활동을 벌릴 만큼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며,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떠내려오는 물건을 건질

필요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칠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환경이 갖일 수 있는 多座席構造,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이런 多面性은 제약된 實驗室 狀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Skinner 상자 속의 쥐는 한마리 뿐이고 지렛대를 누르고 먹이를 먹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실험자는 쥐를 배고프게 해 놓음으로써 먹는 일에만 집착하게 한다. 쥐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지렛대를 누르거나 누르지 않는 것 뿐이다. 사실 Skinner가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을 고의적인 것이었다. 상자 안에 쥐가 여러 마리 들어 있었다면,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여러 다양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 피험자를 사용한 실험실의 상황도 제약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제약은 因果關係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가한 것이지만, 그런 상황제약으로 구조도 단순화되고 행동선택은 심하게 줄어든다. Skinner상자 속에서 배가 고프지 않은 쥐가 여러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환경이 多座席構造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한마리의 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單座席構造를 형성할 뿐이다.

다좌석구조는 동시에 여러개의 행동적 거점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또는 기회를 제약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집단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흔히 役割(role)이라고 하는데, 역할이라는 개념은 각자가 다른 일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 유용한 일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은 어느 정도는 지도자에 의해서 배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환경구조가 지니는 행동거점(또는 행동기회)이 만들어내는 여러 행동들은 그렇게 조율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라는 관점에서 역할이란 행동거점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특수 예인 것이다. 홍수라는 큰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각기 하는 다른 행동(인명구출, 물건 훔치기, 물 구경하기, 떠내려가는 재물 건지기 등)들을 “역

할”이라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역할들은 어떤 한 목표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같은 구조에 실려(또는 매달려) 있을 뿐인 것이다. 각 역할 수행자들은 서로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동일한 하나의 구조와 對話(또는 交渉, transact)하고 있는 것이다.

基本構造와 相互依存構造. 구조를 단순히 환경의 일부로 볼 것인지 또는 행동하는 사람의 동기와 관련이 있는 환경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앞에서는 이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했다. 한 환경구조는 그 구조가 전제로 하는 유기체를 통해서 정의되지만, 그 구조는 그를 대하게 될 행동자와는 독립적인 존재를 갖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Kelley와 Thibaut(1978)는 相互依存關係를 행동하는 개인의 欲求(趣味, 性向, 態度, 動機)가 특정 環境(相對 個人)과 맞물려서 생기는 구조로서 개념화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상호의존관계는 각각 구조(性格構造 내지 個人構造)를 지닌 두 사람(“일반화된” 특정한 개인)이 만날 때 생기는 第3의 構造로 볼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해서 “基本構造”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다. 이것은 상황이나 개인 자체가 지니는 구조를 가리킨다. 行動者의 個人構造를 포함하는 두 개 이상의 기본구조가 만나서 만들어 내는 結合構造를 “相互依存構造”라고 부르기로 한다. 상호의존구조는 사람이나 환경 어느 한 쪽의 기본구조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國際關係에서 말하는 상호의존관계에는 각기 구조를 지닌 두 국가가 만나서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는 개인이 빠져 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기본구조의 분석이 상호의존구조의 분석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보면, 환경구조는 행동자의 個人構造가 포함된 相互依存構造와 행동자가 포함되지 않은 환경구조인 基本構造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相互依存構造를 다루는 Kelley와 Thibaut(1978)나 Lewin (1951)<sup>3)</sup>의 구조 논의와

는 구별되는 것이다.

Kelley와 Thibaut(1978)가 말하는 相互依存關係란 한 독자적인 구조를 지닌 개인이 어떤 다른 구조를 지닌 타인을 만나는데서 생긴 구조이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 환경이라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상호의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洪水를 예를 들면, 홍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提供機會를 주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홍수도 강 근처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가옥도 사람도 구경꾼도 없는 홍수가 되어 버린다. 사람이 그 환경과 만날 때 상호의존관계가 생긴다. 이제 단순히 홍수가 아니라 “물난리”라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내용은 상호의존관계의 함수이고, 상호의존구조는 기본구조들에 의해 정의된다. 환경(예: 洪水)과 사람이 만나서 생기는 사건에서 사람에 관한 구조를 고정시키면(일정하게 가정된다든지 해서) 사건은 주로 環境의 構造를 分析해서 理解하고 豫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과 사람이 결합해서 나오는 相互依存構造는 환경과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假定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된다. 사람이 한 개인인지 또는 요구나 능력이 각기 다른 잡다한 사람들의 集合인지에 따라 생기는 상호의존구조는 달라진다. 장면이 앞에서 말한 多座席構造인 경우 이를 만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면 多座席構造의 특색을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등장인물이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그 장면을 맞이 할 때 洪水의 예에서처럼 다양한 “역할”의 分化가 일어난다. 장면과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일 경우에도 “평균인(the average man)”을 가정하는지 또는 어떤 특이한 類型의 사람을 가정하는지에 따라

상호의존구조의 內容은 달라질 것이다.

구조의 분석에서는 現時性(contemporaneity)이 중요하다. 現在의 環境構造의 分析이 중요하지 그 環境構造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따지는 Lewin(1951, p. 50)이 *anamnesis*라고 부르는 歷史的 方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정한 행동환경의 구조에 관한 지식은 과거에 수집된 관찰(文獻資料 등)을 토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구조에 관한 지식은 行動豫言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의존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어떤 물리적 장면을 만날 때도, 그리고 어떤 課題(task)를 만날 때도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Thibaut와 Kelley(1959)는 사람과 과제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말하고 있다. 예를 強化計劃에서 들면, 50% (간헐적) 강화계획은 100% 강화계획과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배가 고픈 동물(쥐나 비둘기)에게서 이 각 강화계획(실험자가 조종하는)은 동물의 행동대안과 결부해서 하나의 상호의존관계(동물과 강화계획 간에)를 만들어 낸다. 즉, 동물이 “부지런한 반응”과 “게으른 반응”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50%조건과 100%조건은 동물에게 다른 결과를 제공한다. 50%조건에서는 배고픈 동물에게 “부지런한 반응”이 “게으른 반응”보다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100%조건에서는 부지런한 반응이나 게으른 반응이나 결과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50%조건에서는 동물은 게으르게 반응하기 보다는 부지런히 반응하게 된다. 이에 비해 100%조건 하에서는 부지런한 반응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동물이 배고프지 않으면, 강화계획과 동물의 두 반응대안이 만들어 내는 의존관계는 또 달라진다. 강화계획과 관계없이 동물에게는 “부지런한 반응”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게으른 반응”이 어느 경우나 더 좋은 결과를 넘으로, 강화계획에 따라 반응양식이 달라지

3) "...the state of the person (P) and that of this environment (E) are not independent of each other" (Lewin, 1951, p. 239). Lewin이 말하는 상호의존성은 “사람의 상태”라는 말이 암시하듯 一時的(瞬間的)인 사람구조를 전제로 하는 상호의존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다 恒久的인 구조(사람에서나 환경에서나)를 다루는 본 논문의 입장이나 Kelley와 Thibaut의 입장과도 다르다.

4) 現時性은 瞬間性과 구별해야 한다. Lewin은 場面分析에서 현시성을 강조했지만, 다른 한편 앞에서 본대로 “사람의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순간성도 강조했다.

지 않는다.

構造와 圖式. 심리학 내의 사회심리학에는 1970년 초 이래 圖式(schema)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Cha, 1967, 1971; Kelley, 1971) 지금은 널리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事件의 圖式”, “사람의 圖式”, “集團圖式”, “役割圖式” 등 (Sears, Peplau, & Taylor, 1991)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도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general conception)”(Kelley, 1971, p. 151) 내지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인지들의 모임(an organized, structured set of cognitions) (Sears, Peplau, & Taylor, 1991, p. 50)”이다. “모든 도식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구조적 특징이고 이들이 (정보)처리에 미치는 효과이다 (What all schemas have in common is not their content, but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these have on processing)---Sears, et al., 1991, p. 50.”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식(schema)의 정의에 構造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構造”는 圖式の 外部的인 對應物(counterpart)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도식은 사람의 환경 속에 있는 구조를 반영하는 인지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사회심리학이 구조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表象(representation)을 통해서만 구조를 인정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식은 Durkheim의 “representations”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사람 안이 아니라 사람 밖의 환경 속에 있는 원래의 구조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대로 社會學에서, 특히 構造主義 社會學에서 무엇인가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착안하고 이를 사회현상의 이해의 주축으로 삼았지만, 구조라는 개념을 하나의 과학적 개념으로 직접 다루지 않았으며, 구조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서도 할 말이 없었다. Durkheim의 경우 단지 自殺이라는 행동에 관해서 規範으로 부터의 離

脫이나 規範 자체의 不在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이 심하면 자살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사회심리학 내에서는 구조라는 개념이 70년대 이전에는 더러 사용되었으나 그 후에는 용어 마저 쓰이지 않게 되었다. 구조라는 용어가 쓰인 경우에도 구조를 하나의 과학적 개념으로 취급해서 더 분석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사회심리학 내에 구조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심리학 쪽의) 社會心理學이 다룬 여러 문제들 가운데는 구조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구조적 접근은 정통 사회심리학 속에 발견되는 일부 연구들의 숨은 성격을 드러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것이다.

構造의 3가지 側面. 구조를 다룸으로써 얻는 더 중요한 이점은 예언할 수 없는 곳에서 예언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간접적으로나마 심리학 내에서 드물게 구조를 말할 때에 구조가 “反復되는 어떤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다. 集團構造(group structure)를 말할 때 세가지 면에서 구조를 말할 수 있다.

첫번째 측면은 어떤 관찰단위 내에 존재하는 組織性(organization)이다. Raven과 Rubin(1976)이 집단구조를 말할 때 이런 각도에서 구조를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집단구조란 집단 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를 가리킨다.<sup>5)</sup> 사회심리학에서 집단구조라는 말은 주로 집단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지 그것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구조의 두번째 측면은 우리가 不變性(invariance)이라

5) "...a group may be thought of as a social molecule whose atoms consist of individuals...or of positions... These atoms are systematically bound together through the set of relationships that the individuals maintain with one another. ...It is this set of all possible relationships... that defines the social structure of a group"(Raven & Rubin, 1976, p. 251).



부르는 것이다. 상황이 일부 달라져도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특징은 어느 정도까지는 “組織”이란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따로 지적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구조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을 세번째 측면으로써 反復性(repeatability)이다. 구조는 무엇인가 반복되어 일어남을 의미한다. 도식(schema)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 대상의 조직성이나 불변성을 함축해서가 아니라 대상의 반복성(더 정확히 반복발생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결혼식이나 홍수는 인류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같은 시기에 지상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 일어날 때 마다 각각은 어떤 공통된 무엇, 즉 구조를 유지한다. 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앞의 발생을 연구하면 뒤에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 豫言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언제 일어날지를 예언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일어났을 때의 사건의 “내용”을 예언할 수 있다. 반복성은 인간생활에 중요할 때만 인정하는 것이다. 물리적 세계에서야 사건도 인간이 記憶을 하기 때문에 반복성이 인정된다. 바로 도식의 존재는 이런 重要性의 認定을 말하는 것이다. 반복성의 인정에는 중요성 외에 사람의 추상하는 능력과 기억하는 능력이 전제가 된다.

構造의 反復性은 구조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것이다. 基本構造에서 洪水나 戰爭 등은 흔하지 않은 환경이므로 反復率이 다른 환경, 예를 들어 家族이란 환경, 보다는 낮을 것이다. 개인구조와 다른 기초구조(들)가 결합해서 만드는 상호의존구조는 결합확율로 인해서 그만큼 반복율이 비교적 높겠지만, 持續時間은 일반적으로 짧을 것이다.

### 構造와 事件 간의 關係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에 관한 첫 글(車, 1991)에서 필자는 구조의 문제를 사건과 구별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더 생각이 진행됨에 따라 사건과 구조라는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 졌다. 파노라마적 분석과 관련이 있는 두번째 글(車, 1993)에서는 事件과 構造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통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특이한 사건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런데 사건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람이 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완전히 자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예: 결혼잔치, 데모, 전쟁, 지진, 화재)은 “우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사건들은 모두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에 관여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構造는 事件 속에 잘 드러나지만, 구조는 또한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는 곳에도 존재한다. 사건 속의 구조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한해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다른 구조는 우리 생활을 통해서 줄곧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다. 그런으로 우리가 “부패구조”라고 부르는 사회환경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사건이라 부를 수 없지만 구조를 지닌다(車, 1993, pp. 4-5).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은 초기에는 事件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건 속에 드러나는 구조가 그렇지 않은 구조보다 통상 더 잘 눈에 띄기 때문이다.

### 構造의 種類

여기서는 環境構造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環境構造는 앞에서 基本構造의 한 종류로써(다른 종류는 個人構造이다) 우리가 事件이라고 부르는 것들에서 가장 뚜렷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事件(events)이란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을 가리킨다. 그런 사건은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일로 부터, 좀더 복잡한 경우는 結婚

式, 그리고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戰爭이나 두 나라의 併合(또는 統一)과 같은 일이 그 보기가 된다. 이런 사건은 각기 독자적인 구조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多座席構造와 單座席構造. 이 구분은 앞에서 잠깐 보인 것이다. 多座席構造(multi-seated structure)란 한 구조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여러 사람을 싣고 가는 배에 비유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單座席構造(single-seated structure)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는 한때에 한 개체(사람)만을 수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多座席構造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다좌석구조의 분석은 단좌석구조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事件的 構造와 非事件的 構造. 구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몇가지 다른 分類法이 가능하다. 하나는 구조가 발견되는 狀況의 種類에 따른 분류이다. 즉, 구조가 사건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사건 내에 내재하는 구조를 事件的 構造라고 부르고 사건과 관련없이 존재하는 구조를 非事件的 構造라고 부를 수 있다. 사건은 일상의 생활 흐름 속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좁게 한정되어 나타나는 돌출성을 지닌 것이다. 전쟁, 홍수, 사고, 혁명 등은 자체가 사건이면서 다른 개인에 대해서 하나의 장면구조를 제공한다. 반면, 흔히 말하는 “腐敗構造”와 같은 것은 비사건적 구조의 예가 된다. 비사건적 구조에 비해서 사건적 구조는 그것이 특정한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비사건적 구조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마치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의 자전(自轉)을 자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은 자전을 “보기” 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본다. 즉, 지구의 자전운동 대신에 태양이나 다른 천체의 운동을 본다.

物理的 構造, 社會的 構造, 行動的 構造. 구조가 발견되는 상황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구조의 성질에 따라서 구조를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런 각도에서 구조는 (1) 物理的 構造, (2) 社會的 構造, 그리고 (3) 行動的 構造로 분류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이들 3가지는 비사건 구조보다는 사건구조 안에서 구별하기가 쉽다. 物理的 構造는 洪水나 天災地變과 같은 사건이 지니는 구조이다. 爆發事故도 물리적 구조의 좋은 예이다. 어린 아이가 원인이었던 어른이 원인이었던 대형 폭발사고는 폭발이 지닌 물리적 힘에 의해서 그 성격이 규정된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사건에 따라서 특이한 구조를 노정하는데, 사람은 이 구조에 적응해야 할 필요에 당면한다. 사는 고장의 氣候도 물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물리적 구조는 그 안에 사회적 구조나 행동적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홍수에 떠 내려가는 사람은 홍수라는 물리적 사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가 살려달라는 구조요청행동을 할 때는 하나의 작은 행동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 구조는 홍수라는 큰 구조의 部分構造(part-structure)를 이룬다.

두번째 유형인 社會的 構造는 환경(사회나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의 性構成이나 人種構成이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집단역학에서 강조한 “집단구조”가 전형적인 예이다. 또 집단크기도 사회적 구조의 예이다. 일종의 “물량의 구조”이다. 집단 안의 사람 수가 많아지면, 개인은 발언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세번째 유형의 구조는 行動的 構造인데, 자신이 사는 사회나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일정한 態度나 行動을 보일 때 생기는 구조이다. 주위의 사람들의 習慣, 態度, 趣向 등도 행동적 구조의 예가 된다. 최근까지 초, 중, 고교 교사에게 학부모가 “寸志”를 건네주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90% 이상의 교사가 촛지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3. 6. 23.).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부모가 촛지를 건네주는 것과 그런 분위기가 없을 때에 촛지를 건네주는 것 간에는 촛지를 건네는 쪽에 오

는 결과로 보아 커다란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촌지를 주든 안 주든 학부모에 오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에 촌지를 건네지 않는다는 것(nonresponse)은 곧 손해를 자초하는 행위가 되므로 부담스럽지만 할 수 없이 촌지를 건네게 되는 것이다. 혼한 말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腐敗構造”라고 부르는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구조”란 위의 예에서처럼 부패분위기와 그렇지 않은 분위기 모두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Lewin이 30년대에 행한 “集團雰囲気”연구도 행동적 구조를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동적 구조의 경우, 개인이多數에 속하는지(동조하는지) 또는少數에 속하는지(동조 안 하는지)에 따라 그 구조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각종 학술발표 모임은 나셔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질문을 던질 기회를 노리는 각종 정신이상자들을 이끌어 들인다. 흰색 승용차를 모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사회에서는 빨간색 승용차를 사는 것은 손해가 된다. 중고차로 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차를 사는 사람은 다수가 쓰는 흰색 차를 사기 쉽다. 결국 同調를 보이는 것인데, 이런 동조의 배경에는 行動構造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심리학은 社會比較欲求(social comparison need) (Festinger, 1954)와 같은 그리 강력하지 못한 변인만을 강조해 왔다.

行動主導形 構造, 偶發形 構造, 混合形 構造. 이전의 글(卓, 1993)에서 필자는 이와는 좀 다른 구조의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하나는 (1)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구조(예: 腐敗構造), 둘째는 (2) 개인상호작용과는 무관한 구조(예: 홍수, 지진), 그리고 (3) 혼합형 구조(예: 통일, 전쟁)이다. 이 분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분류라기 보다는 “사건”의 분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분류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건의 발생원인으로써 개입되어 있는 정도에 따른 것

이지만 구조의 분류로 이용할 수도 있다. 즉 (1) 행동주도형 구조, (2) 우발형 구조, 그리고 (3) 혼합형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행동주도형의 경우 학교에서의 촌지 건네주기 처럼 처음에는 교사에 대한 정당한 사례를 위한 행동이 여러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교사가 촌지를 준 학부모의 아이를 특별배려한다는 인식이 있게 되면, 그런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즉 “무행동(nonresponse)”이 자식의 특별배려를 위해 하는 행동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 心理學 理論 속에 發見되는 構造

심리학 이론 속에는 여기서 말하는 구조와는 다른 구조들이 더러 나타난 바 있다. 이들은 情報構造(Garner, 1962), 사람 속의 認知構造(지각된 상황 속에 있는 구조) (Lewin, 1951), 사람의 概念的 構造(conceptual systems) 내지 情報處理樣式(Harvey, 1966)이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심리학에서 구조의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들고 나온 사람은 Floyd Allport(1955)이다. 그가 다룬 구조는 사람의 지각을 포함하는 행동 속에 발견되는 “循環的(circular)” 構造였다. 性格構造라는 말은 Freud이대로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 특별한 의미를 찾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Floyd Allport는 구조를 강조한 이론가로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行動主義의인 社會心理學者였지만 知覺理論들을 개관하는 과정에서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말하는 구조가 여기서 말하는 구조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는 과학이 두가지의 법칙을 다룬다고 주장했다. 즉, 數量的 法則(the quantitative laws)과 構造의 法則(the law of structure)이 그것이다(Allport, 1955, pp. 621-623). 흔히 심리학자가 전자만으로 현상을 연구하는데 그것은 전체 현상의 한 측면만을 다룰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통찰에 입각해서 그는 事件構造理論(the

theory of event-structure) (Allport, 1955, p. 635)이라는 이론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事件(event)이란 집을 지을 때 처럼 두 나무기둥이 맞닿는 것, 즉 접촉에 해당되며, 이런 사건이 "構造"의 한 事實이 된다고 말한다("This something is the 'event' or 'contact,' that is, the encounter, that takes place between the new beam and an adjacent timber. This event is a fact of 'structure'" --- Allport, 1955, p. 623). Allport가 말하는 사건은 오늘날 사건의 屈折點(breakpoints)이라 불리는 것(Newtson, 1976)와 유사한 것이다.

사람 앞에 나타나는 모든 刺激條件(stimulus conditions)이나 場面(situation)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확대 해석되면 구조라는 개념이 쓸모가 없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별에 도달한다. 구조는 행동자 밖에 있는 환경에도 있을 수 있고 행동자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심리학이 자극-반응의 도식에서 사람을 연구해 오는 동안, 상황의 구조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내부적 구조를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요구체계를 알아내고 측정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런 편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개념이 사람 내부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感覺器官에 관한 것, 神經構造, 性格構造, 動機體系 등이 그런 예이다.

한편 外部狀況 내지 環境에 대한 개념은 극히 빈약하다. 비교적 외부환경을 강조한 듯이 보이는 Kurt Lewin(1935)조차도 그의 生活空間(life space)은 知覺된 空間으로서 주로 사람의 欲求(내부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런 주적을 하다보면 뜻밖에도 그래도 외부상황의 구조(이 경우는 자극패턴이지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形態主義(Gestalt) 心理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밖에 심리학 내에서 외부상황의 구조를 강조한 사람으로는 強化計劃이 行動樣式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Skin-

ner와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상호의존性(interdependence)의 形態의 중요성을 강조한 Kelley와 Thibaut(Kelley & Thibaut, 1978; Kelley, 1983)를 들 수 있다. Kelley와 Thibaut의 입장은 원래 Skinner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機能分析(functional analysis)을 토대로 한다. 사회심리학 내의 集團構造(group structure) (Raven & Rubin, 1978)에 관한 연구나 논의에도 구조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앞서 말한 대로 의외로 지각심리학 안에서 구조의 개념이 일찍 강조되었는데, 형태주의 심리학에서는 實驗室에서 제시하는 刺激形態 속에서의 구조를 강조한 반면 Gibson이 대표하는 생태론적 지각이론에서는 實生活場面 속에서의 知覺對象이 지니고 있는 구조를 강조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생태론자들은 행동을 전제로 한 지각을 연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刺激만이 아니라 知覺者도 똑같이 중요하다. 提供機會(affordances)나 共鳴情報(attunements)나 하는 개념(Zebrowitz, 1990)이 그런 것을 보여준다. 제공기회는 環境 속에 있는 구조와 관련된 것이고 공명정보는 知覺者 속의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비해 형태주의자들의 지각이론은 상대적으로 자극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Skinner는 구조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環境과 行動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으로써 간접적으로 구조를 강조한 이론가이다. Skinner상자 속의 비둘기나 쥐가 당면하는 구조는 실험자의 행동(또는 그가 짜 놓은 強化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가 꾸며놓은 連續的 強化計劃은 동물이 적절한 反應(지렛대 누르기나 圓盤 조기)을 할 때마다 먹이를 내주는 극히 반응적(responsive)인 구조이다. 이에 비해 間歇的 強化計劃은 덜 반응적인 구조를 담은 상황이다. Skinner상자에서 동원되는 욕구(동인)는 오직 먹이에 대한 욕구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욕구와 관련된 外部狀況 構造가 바뀔 때마다 행동이 따라서 바뀌게 된다. 강화계획은 동물에 대한 먹이 공급 환경의 구조

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래 이 구조는 먹이 공급을 조절하는 실험자의 행동으로 구성된 것이었으나 실험자가 먹이 供給體系를 機械裝置에 연결시켜 놓으므로써(실제 학습실험 장면에서 그렇게 하듯) 행동구조가 물리적 환경구조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Kurt Lewin이 場面分析(환경분석이 아니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社會心理學者로서가 아니라 動機心理學者로서 이다. 그는 사람의 동기화된 행동을 다룬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Lewin 1935)에 이어 *Principles of topological psychology* (Lewin, 1936)을 펴냈는데, 후자는 사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장면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時間만 아니라 공간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구축한 이론이다("...we have to deal in psychology, too, with a manifold, the interrelations of which cannot be represented without the concept of space"---Lewin, 1951, p. 25). 그가 vector 와 topology의 개념들을 사용해서 생활공간(life space)을 그리려 한 것은 생활공간을 제대로 그리려면, 數量的 記述뿐만 아니라 質的 記述까지 결드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Certain types of geometry, like topology, are most useful in representing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situation"---Lewin, 1951, p. 64).

Lewin은 생활공간을 구조를 지닌 공간으로 표시했는데, 생활공간의 구조와 관련해서 領域(region), 境界(boundary), 誘引價(valence), 經路(path), 등의 개념들을 도입해 사용했다. 이런 개념은 그가 심리학에 새로 도입한 構成的 내지 發生學的 방법(the constructive or genetic method) (Lewin, 1951)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構成的 方法이란 현상의 피상적 특징으로 현상을 분류해서 법칙을 찾는 방법과는 달리 構成概念(설명개념)을 동원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분류하려 하는 접근이다. 이런 접근법은 그의 場理論의 특징중의 하나로 꼽힌다(Lewin, 1951, pp. 60-61). 이런 구성개념들은 구조라는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데, Lewin의 경우 구조적 개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구조 자체를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Lewin의 場理論이 生活空間(life space) 속에 환경을 포함시키고 구조적인 개념과 구조에 있게 마련인 질적인 측면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Topological concepts, although essential for representing psychological space and the properties of person and environment,"---Cartwright, 1959, p. 60)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構造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으면서도 "反復되는 場面構造"라는 생각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1) 主觀的 場面の 강조, (2) 사람과 環境의 相互依存性 강조, (3) 現時性의 강조, 그리고 (4) 機械論的 立場을 들 수 있다.

Lewin의 생활공간은 지각된 공간("the world as it exists for the individual being studied"---Cartwright, 1959, p. 67)이고 따라서 환경도 지각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은 "認知構造(cognitive structure)"로 환원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환경을 개념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Lewin은 행동자가 개입된 환경과 연구자가 관찰한 환경 사이에 넘나드는 경향이 있었다.<sup>6)</sup> 다시 말하면, 場面構造와 環境構造를 혼동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Lewin은 생활공간을 사람과 환경과 그밖의 모든 심리적 사실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려고 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사람을 빼고 환경만을 기술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 Lewin의 現時性 原理(the principle of contemporaneity)도 環境構造라는 생각의 발

6) 이 점에 대해 Cartwright (1959)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lthough he (Lewin) favored use of subjects' accounts of the world as they experience it, he did not equate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with the phenomenal world. His basic criterion was whether any given fact had an effect on behavior, not whether it appeared in conscious awareness. He explicitly asserted that the life space should include within it "unconscious" determinants of behavior" (p. 68).

전에 방해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시성 원리란 인과관계를 증시하는데서 온 것으로 현재의 행동의 원인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sup>7)</sup> 현재의 상황 내지 장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환경 자체가 갖는 구조, 특히 반복되는 구조를 등한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Lewin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한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物理主義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心理的環境"이나 다른 심리적 변인을 과감히 다루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사실(예: 挫折, 葛藤)을 분석할 때는 근본적으로 物理的인, 더 구체적으로는 機械論的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영역, 경로, 힘, 힘들간의 갈등, 이동, 유인가와 힘의 場 등의 개념(Cartwright, 1959, pp. 24-28)이 그런 입장을 보여준다. 결국 Lewin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의존관계의 구조를, 그것도 個人的의 主觀的인 構造를 機械論的으로 그린 것이다. 밀고 당기는 힘을 가정하는 機械論은 사람의 行動(운동)의 即時的 原因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지만 機能分析은 環境이란 더 먼 그러나 보다 막강한 原因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Lewin은 사람의 행동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 결과, 그런 상황을 인간의 문화적 역사적 사실로 파악하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또한 인간이 맞이하는 장면이 여러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시점에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사회심리학 안에서 구조라는 개념은 集團構造(group structure)와 相互依存關係(interdependence)라는 개념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심리학 개론서에서는 1980년 무렵 까지만 해도 구조라는 말이 주로 집단구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쓰였으나 (예: Jones & Gerard, 1967; Raven & Rubin, 1976, 1983; Freedman, Sears, & Carlsmith, 1978, 1981) 그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거나 사라지게 되었다 (예: Sears, Freedman, & Peplau, 1985; Brown, 1986; Myers, 1987; Baron & Byrne, 1987, 1990). Jones와 Gerard(1967)는 "구조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의 표면적 특징 밑에 깔린 그리고 그를 낳게 하는 부분들의 조직이란 생각을 나타낸다(The concept of structure generally expresses the idea of an organization of parts underlying and giving rise to the surface characteristics of an object)" (p. 642)라는 말로 "집단구조의 심리적 기초(Psychological bases of group structure)"라는 장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의 관심은 구조분석 자체에 있다가 보다는 구조를 발생케 하는 心理的 要因과 構造가 個人的 行動에 미치는 影響에 있었다. Raven과 Rubin (1976)은 집단구조를 말하면서 (1) 평가구조, (2) 상호의존구조, (3) 통신구조, (4) 역할구조, 그리고 (5) 영향-권력구조의 5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이들도 구조의 성질을 정면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집단구조와는 별도로 사회심리학 내에서 구조의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다룬 이론가는 Kelley(1983)이다. Kelley(1984)는 자신의 이론을 "對人場面의 理論(a theory of interpersonal situation)"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 이론과 Lewin(1935, 1936)의 葛藤場面 분석과 迂廻(Umweg)장면 분석이 理論的 場面分析의 예이고, 經驗的 分析의 예로는 Barker(1968)의 "行動마당(behavior settings)"의 관찰 및 분류와 Graham, Argyle, 및 Furnham(1980)의 장면의 目標構造(goal structures)의 관찰을 들고 있다. 여기서는 Kelley의 접근을 다루기 전에 Barker의 접근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Barker의 生態心理學(ecological psychology) (Barker, 1968, 1979)은 行動의 環境을 記述的(descriptive)으로 다룬다. 생태심리학의 핵심개

7) "The field-theoretical principle of contemporaneity in psychology means that the behavior *b* at the time *t* is a function of the situation *S* at the time *t* only... . If one has to derive behavior from the situation at that time, a way has to be found to determine the character of the situation at a given time" (Lewin, 1951, p. 48).

넘은 行動마당(behavior settings), 標準行動패턴(standing patterns of behavior), 그리고 物理的 環境(physical milieu)이다. 표준행동패턴이란 어떤 장소(자리)에서 의례히 발견되는(여러 사람들에서) 행동의 목록 같은 것으로 (예: “강의”에서 강의, 청강, 노트필기, 손들기, 질문 등) 자리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사물의 배치와 같은 것이다 (예: 교실의 탁자, 칠판, 방 자체 등). 행동마당은 표준행동패턴과 물리적 환경의 함수이다. Barker가 말하는 행동마당이란 구체적으로 “강의위원의 교실,” “예배보는 자리”와 같은 것이다. 같은 장소(교실)가 강의실이 될 수도 예배의 장소로 될 수도 있다. 물리적 환경이 달라져도 그리고 용도나 목적(표준행동패턴)이 달라져도 행동마당은 변한다. 중요한 사실은 행동마당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변한다는 것이다.

生態心理學의 行動場面에 대한 관심은 본 논문의 관심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두 접근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생태심리학에서는 행동마당(즉 장면)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은

한 공동체나 지역 내에 어떤 행동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또는 자주 발견되느냐에 있다. 즉, 관심이 그런 의미에서 생태학적이다. 생태심리학적 접근이 記述的인데 비해 본 논문이 옹호하는 접근은 보다 分析的이고 理論的이다. 特定한 行動場面の 구조를 분석하고 구조의 어떤 측면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유발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조의 종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태학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생태심리학의 기본 관심은 한 공동체나 사회나 개인을 행동이란 면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그 산물은 스토리가 없는 소설과 같은 것이다. 이에 비하면, 여기서 취하는 접근은 共同體나 社會나 개인이 아니라 行動場面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Kelley(1983)의 場面分析은 그와 Thibaut

(Kelley & Thibaut, 1978)가 내놓은 相互依存關係 理論(the theory of interdependence) 속에 나타나 있다. 이들은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상황을 상호의존관계로 특징지운다. Kelley와 Thibaut가 다루는 상호의존관계는 두 개인으로 구성된 기본구조가 결합해서 만든 특수한 상호의존구조이며 “두 사람 간에 존재하는 利害關係의 構造”이다. 각각 취향과 성향이 다른 사람(행동자)들이 만나면 두 사람 사이에 독특한 상호의존관계의 형태가 생긴다고 본다. 이런 의존성은 두 사람이 각각 2가지 행동 중 하나를 택했을 때 잘 나타난다. 각자가 어느 한 행동을 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outcome) 내지 이해득실을 행렬표(matrix)의 형식으로 표시하는데, 이런 결과행렬표 하나하나가 특정한 2인장면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Each matrix is assumed to describe the structure of a particular interpersonal situation”---Kelley, 1983, p. 9). 두 사람이 만나서 벌어져가는 행동은 이 상호의존 형태에 의해 종국적으로 좌우된다고 본다. Asch(1952)도 더 앞서 집단내 성원간 상호의존 관계를 구조로서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상호의존형태 각각을 구조라고 명백히 말하고 분석한 것은 Kelley(1983)에서 비롯된다.

Kelley(1983)는 또 “行動傾向”(동기와 비슷한 개념임)이 만나는 두 사람간의 구조에 의해 생기고 유지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또 특정한 행동경향은 특정한 구조를 선호하고 추구하고 만들어내기 까지 한다(“Each tendency is oriented toward certain favored structures that, ... are preferred, sought, or created through action or cognition”---Kelley, 1983, p. 19)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는 어릴 때부터의 경험을 통해서 일정한 행동경향 (욕구, 동인 등), 예컨대 協同性, 競爭性向, 均衡追求性向, 支配性向을 만들어내는 반면, 그런 성향은 또 거기에 맞는 구조를 선호하고 추구하고 또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Kelley는 그가 말하는

대인장면에서 "행동경향"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것은 그의 장면구조가 結果構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行動構造의 성격을 띄는데서 오는 자연적인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Kelley(1983)은 상호의존을 구조라고 분석하는 데서 얻은 이런 통찰을 다른 상황에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래서 認知不調和(dissonance), 均衡(balance), 反撥(reactance), 衡平(equity), "공정한 세계(a just world)" 등 사회심리학에 낯익은 용어들이 각각 다른 장면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장면 내에는 몇개의 다른 구조가 있는데 특정한 행동경향은 이중 하나를 선호하게 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인지부조화는 여러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 決定後-場面(postdecisional situation)인데, 不調和解消傾向은 행동(결정)후 그 결정의 뒤받침(이유)이 적은 구조보다는 많은 구조를 선호한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Kelley가 말하는 구조는 "인지적" 구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Kelley와 Thibaut(1978)가 말하는 變形(transformation)이라는 것도 인지수준에서의 장면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Kelley(1983)가 이렇게 상호의존관계에서 발견한 구조라는 생각을 사회심리학의 다른 장면에까지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런 상황 내지 장면은 어디까지나 실험사회심리학에서 다루어졌던 최대한 세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장면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 흔히 心理內的(intrapsychical)인 構造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구조는 그 출발점이 대규모 장면에서 발견되는 구조(다좌적구조)이고 다른 보다 작은 구조[Kelley(1983)가 다룬 것과 같은]는 이의 部分構造(part-structure)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 내적인(마음 속의) 구조보다는 사람 밖에 존재하는 구조를 강조한다.

극히 최근에 사회심리학에는 장면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학자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지만, 구조라는 생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Ross와 Nisbett(1991)은 "여러 널리 알려

진 실험실 및 현장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은 即時的 社會場面の 操作이 대개 흔히 사회행동을 결정짓는다고 여겨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나 성향의 개인차 효과를 중요성에 있어서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8)</sup>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심리학이 심리학에 한 공헌은 3가지로 요약하는데 그중 하나가 場面主義(The principle of situationism)이고, 두번째가 場面定義의 強調(The principle of construal), 그리고 세번째가 緊張體系의 強調(The principle of tension systems)이다. 여기서는 앞의 둘만이 관련이 있다. 장면정의(場面定義)의 중요성이란 행동할 사람이 장면을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그의 행동을 예언하고 통제하는 데 절대 중요하다는 이해이다. 그러나 이들이 장면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Lewin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상기한 3가지 원리에서 드러난다.

결론은 말하면, 심리학 내에는 構造라는 概念이 오래 전 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사람 안에 있는 구조나 자극의 구조를 말했고, 행동환경의 구조를 말한 예는 극히 드물었다. 사회심리학 안에서의 환경구조에 대한 취급은 Kelley(Kelley & Thibaut, 1978; Kelley, 1983)의 相互依存(interdependence)構造나 集團構造의 개념(e.g., Raven & Rubin, 1976)에서 발견된다. 나머지는 圖式(schema)이나 Heider의 均衡理論에서 처럼 사람 머리 속에 있는 認知構造를 다루었다. 외부장면 속의 구조를 다룬다 해도 사람들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구조만을 다루었고 사건이나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행동구조를 다루지 못했다.

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잇점의 하나는 심리학 내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개념들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 통합시켜 준다는 것이다. 즉 위

8) "...wha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 host of celebrated laboratory and field studies is that manipulations of the immediate social situation can overwhelm in importance the typ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 traits or dispositions that people normally think of as being determinative of social behavior)"(Ross & Nisbett, 1991, p. xiv).



에서 말한 相互依存關係, 集團構造, 그리고 Skinner의 強化計劃 등을 구조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어느 것도 인간의 행동장면 속의 구조가 反復發生할 수 있고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

## 結 言

이상에서 간단히 심리학 안에 “環境의 構造”라는 개념을 어떻게 끌어 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극히 기초적인 생각을 제시했다. 원래 출발점은 파노라마적 社會心理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사람의 환경의 일부로서 인간생활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구조는 반복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구조 속에 일어나는 일을 분석하면, 다음에 그 구조가 다시 발생할 때 일어날 일들을 쉽게 예언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심리학 내에는 구조의 개념이 여러가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環境의 構造를 다룬 예는 극히 드물다. 여기서 취한 환경구조에 대한 입장은 Kurt Lewin의 生活空間에 대해서 취한 입장이나 Kelley(1983)가 2人間の 相互依存關係構造에 대해서 취한 입장과는 몇가지 점에서 다르다. Barker(1968)는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사건이나 모임을 “행동마당(behavior settings)”이라는 개념을 통해 연구했지만 環境의 構造의 分析보다는 特定 地域社會나 個人을 記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場面の 分析의 필요를 말하면서도 Lewin은 장면 내에서 발견되는 구조가 反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Galileo가 대표하는 實驗物理學의 因果關係 分析法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構造의 反復이 지구상 여러 곳에서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도 時間間隔을 두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예컨대 洪水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며, 같은 고장에서 같은 홍수가 10년 뒤에도 천년 뒤에도 같은 구조를 지니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Lewin에 비하면 Kelley

(1983)는 場面構造의 反復發生을 인정하는 편이었으나 그도 그것을 구조의 특징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Each [behavior] tendency has relevance to a domain of structures that describes behavioral situations commonly encountered in some segment of everyday life”---Kelley, 1983, p. 19).

Lewin과 Kelley는 모두 사람과 환경의 相互依存關係의 構造를 다루었지 환경 자체의 基本構造를 다루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구조와 상호의존구조를 구분하였는데, 基本構造란 사람과 독립적으로 정의된 環境構造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구조의 分析이 필요하며, 이런 구조의 개념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이려 노력했다. Lewin의 相互依存構造는 行動者が 개입된 生活空間 안에 발견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認知 속의 構造는 경향이 있었다. Kelley는 주로 두 사람이 만나는 狀況의 構造를 結果相互依存關係 (outcome inter dependence)를 분석하면서 主觀的 構造보다는 客觀的 構造에 역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 “객관적 구조”도 사실은 두 사람 각자가 認知한 結果를 차트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본” 객관적 環境構造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의 構造에 대한 접근은 Lewin식의 現時的인 接近(행동자가 認知한 現在狀況을 토대로 하는)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歴史的 接近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과거에도 지금의 行動者が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했던 것이므로, 구조는 지금의 사람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環境構造는 사람의 욕구를 전제로 정의되는 것이지만, 어떤 개인과의 만남으로 생기는 相互依存關係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으나 이렇게 정의된 환경구조는 반복된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생물 개체의 과거 경험이나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發生學的 概念이 아니다.

여기서 다루는 구조는 物理的 環境도 포함한다. 그런 면에서 Lewin과 비슷하나 주로 對人

關係에 초점을 맞춘 Kelley(Kelley & Thibaut, 1978; Kelley 1983)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개념화한 구조는 특히 사회심리학이나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 事件(event)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공한다. Kelley(1983)는 構造라는 개념을 實驗社會心理學에서 다루어오던 개념(예: 認知不調和, 均衡, 衡平, 反撥)에 일반화하려는 초보적인 시도를 했으나, 그 구조는 주로 한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구조였고, 구조 자체를 다루기 보다는 行動傾向(behavior tendencies)이 선택하는 대상으로서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은 環境構造 중에서 “多座席構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포괄적 구조는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마당”의 역할을 한다. Lewin (1951)은 한 사람이 행동하는 구조를 증점적으로 다루었고, Kelley (Kelley & Thibaut, 1978; Kelley, 1983)는 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생기는 對人構造(상호의존관계)를 다루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구조의 개념은 Lewin이나 Kelley가 다루는 구조를 모두 부분구조로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多座席構造와 같은 包括的 構造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작은 구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환경구조 속에 연계된 사람들은 서로 상호의존관계를 갖일 수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構造의 어느 한 측면에 이끌린 사람들 간에는 競爭이 있기 쉽지만, 한 구조의 다른 측면들에 각각 이끌린 사람들 간에는 경쟁이 있을 필요가 없다.

행동장면의 구조라는 개념은 현재 심리학 내의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아직 구조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분석해야 할지는 분명치 않다. 여기서는 극히 초보적인 시도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도한 것 같은 환경구조의 분석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場面(situation)”의 분석의 길을 열어 줄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장면의 분석이 너무 지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당

면하는 장면은 다양한 것이지만, 무한히 다양한 것이 아니며, 또 늘 새로운 것도 아니다. 구조의 분석은 장면이 보이는 일종의 不變性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며, 機能分析을 필요로 한다. 구조의 분석방법은 앞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로 남지만, 이런 접근은 社會的 事件의 체계적 이해나 動機의 心理學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金暲東 (1983). 現代社會學의 爭點. 서울: 법문사.
- 車載浩 (1988). 心理學에서의 物理主義.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편, 人間理解의 새地平 (pp.49-60). 서울: 교육과학사.
- 車載浩 (1991). 파노라마적 社會心理學의 展開. 韓國心理學會 편, '91 年次大會 學術發表論文抄錄(pp. 455-464). 서울: 편자.
- 車載浩 (1993). 南北韓 統一에 대한 心理學的 眺望. 韓國心理學會 편, 南北의 障壁을 넘어서: 統一과 心理的 和合.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pp. 1-17). 서울: 편자.
- Asch, S. E. (1952).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llport, F. H. (1955). *Theories of perception and the concept of structure*. NY: Wiley.
- Barker, R. G. (1968). *Ecological psychology: Concepts and methods for studying the environment of human behavio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rker, R. G. (1979). Settings of a professional life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137- 2157.
- Baron, R. A., & Byrne, D. (1987). *Social psychology*. 5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Baron, R. A., & Byrne, D. (1990). *Social Psychology* (Instructor's edition). Boston, MA: Allyn & Bacon.
- Brown, R. (1986). *Social psychology*. 2nd ed. NY: Free Press.
- Cartwright, D. (1959). Lewinian theory as a contemporary systematic frame work. In Sigmund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pp. 7-91). NY: McGraw-Hill.
- Cha, J.-H. (1967). Schema as a useful concept in social psychology.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Cha, J.-H. (1971). Clarity of the focal stimulus cue and the mediation of two opposing social perceptual effect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Durkheim, E. (1897). *Le suicide*. Paris: F. Alcan. [영역판(1951). Glencoe, IL : Free Press.]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J. M. (1978). *Social psychology*. 3r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J. M. (1981). *Social psychology*.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raham, J. A., Argyle, M., & Furnham, A. (1980). The goal structure of situ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345-366.
- Sears, D. O., Freedman, J. L., & Peplau, A. (1985). *Social psychology*. 5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Garner, W. R. (1962). *Uncertainty and structure as psychological concepts*. NY: Wiley.
- Harvey, O. J. (1966). System structure, flexibility, and creativity. In O. J. Harvey (Ed.), *Experience, structure, and adaptability* (pp. 39-64). NY: Springer.
- Jones, E. E., & Gerard, H. H. (1967). *Foundations of social psychology*. NY: Wiley.
- Kelley, H. H. (1971).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and B. Weiner,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pp. 151-174).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Kelley, H. H. (1983). The situational origins of human tendencies: A further reason for the formal analysis of struc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8-30.
- Kelley, H. H. (1984). The theoretical description of interdependence by means of transition l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956-982.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Y: Wiley.
- Lewin, K. (1935).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Y: McGraw-Hill.
- Lewin, K. (1936). *Principles of topological psychology*. NY: McGraw-Hill.
- Lewin, K. (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yhew, B. H. (1981). Structuralism versus individualism: Part I. Shadow boxing in the dark. *Social Forces*, 59, 335-375.
- Myers, D. G. (1987). *Social psychology*. NY: McGraw-Hill.
- Newton, D. (1976). Foundations of attribution

- tion : The perception of ongoing behavior. In J. H. Harvey, W. J. Ickes, & R. F.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1)*. Hillsdale, NJ: Erlbaum.
- Raven, B., & Rubin, J. (1976). *Social psychology: People in groups*. NY: Wiley.
- Raven, B., & Rubin, J. (1983). *Social psychology. 2nd ed.* NY: Wiley.
- Ross, L., & Nisbett, R. E. (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Sears, D. O., Peplau, S. A., & Taylor, S. E. (1991).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orokin, P. (1928).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NY: Harper & Brothers.
- Zebrowitz, L. A. (1990). *Social percept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Structure in Psychological Environment

Jae-Ho Cha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thesis was presented to the effect that the concept of structure, particularly that of "multi-seated structure", within the behavioral environment may prove to be useful for psychology, especially for "panoramic social psychology" (Cha, 1991), which deals with large-scale social events or phenomena (*e.g.*, war, flood, corruption). A preliminary discussion of the possible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structure was made, including the nature of concept, the kinds of structures to be f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t and structure, and "structures" discussed in current psychological literature. It was maintained that the existing conception of structures do not directly address the problem of structure in human life situations and that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structure might prove useful for the analysis of events and should offer a new vista for the study of motivation.